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봉사

(주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

성경: 요일 1:1-2, 2:25, 5:11-16

- I.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 — 요일 5:11-16.
- II.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넘치는 여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공급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 요일 1:1-2, 2:25, 5:11-13, 16.
- III.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 곧 다른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이다 — 고후 4:12.
 - A. 교회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봉사가 생명의 봉사이기 때문이다 — 롬 8:2, 6, 10-11.
 1. 우리가 단지 사무적인 업무만 다루거나 일들을 관리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봉사는 실패이고 헛된 것이다.
 2.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요일 5:16, 고후 4:12.
 3. 교회가 단지 일만을 관심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일종의 사회단체가 될 것이다.
 4.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봉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요점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봉사가 주님의 생명을 위한 출구가 되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 — 요 10:10, 11:25, 요일 1:2.
 - B.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 주는 생명은 그 영 안에 있고, 그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은 연합된 영 안에 위치하고, 이 영 안에 거하며, 이 영 안에서 자란다 — 고전 15:45하, 6:17, 롬 8:4.
 1. 우리가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을 해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 롬 7:6, 1:9.
 2. 우리의 영이 해방될 수 없다면, 신성한 생명은 해방될 길이 없다.
 - C. 우리는 생명과 도덕적인 성품의 차이를 보아야 한다 — 롬 7:21-23, 8:2, 11.
 1.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성품과 선행과 좋은 행실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 요 1:4.
 2. 다른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선한 행동을 해야 하고 훌륭한 도덕적인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선한 행동과 도덕적인 성품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a. 우리의 봉사에서 우리가 나무랄 데 없고 칭찬받을 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단지 선한 성품과 온전함과 인간적인 미덕들만 표현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다.

- b.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를 만질 때마다, 그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만지는 것이다.

IV. 봉사하는 사람들로써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 요일 5:11-16.

- A.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 고후 4:1, 12.
 -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얻기 원하시는 봉사는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요일 5:16.
 - a. 성도들과 교회의 봉사의 중심과 초점은 어떤 사업이나 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 b.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일이나 사업을 산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갈망하신다 — 요일 2:25, 5:11-13.
 - 2. 유일한 측정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했으며, 교회의 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신성한 생명의 요소가 다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갔느냐이다 — 고후 4:12.
- B.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 즉 포도나무의 생명의 공급을 해방하는 것이다 — 요 15:4-5.
- C.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입지를 그리스도께 드러서 우리를 채우시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선호와 성향이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선호와 성향이 된다. 우리의 봉사에서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 요일 2:27, 엡 3:16-17.
- 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일이 그분에게서 비롯되고, 우리와 그분과의 교통에서 나오며, 그분과 그분의 생명으로 넘쳐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 비교 시 36:8-9.
- E. 우리는 교회의 봉사가 하나님께서 흘러나오셔서 다른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 요 7:37-39.

V. 공급하는 것은 생명을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 요 19:34, 7:37-39.

- A.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흘러나움이다.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흘러나움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 엡 4:18, 계 22:1.
- B. 생명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걸사람이 처리받고 파쇄되어야 한다 — 고후 4:16, 히 4:12.
 - 1. 우리의 걸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신성한 생명이 순수하게 흐를 수 없다.
 - 2.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혼이 굴복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매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을 것이다 — 엡 3:16-17.
- C. 생명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은 매 맞은 반석으로 예표되신, 매 맞으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 요 19:34, 출 17:6.
 - 1. 우리가 매 맞으신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때, 즉 우리가 매 맞은 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신성한 생명이 생수처럼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것이다 — 출 17:6, 요 7:38, 비교 빌 3:10.
 - 2. 생수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 생명, 곧 우리의 타고난 생명

이 반드시 매 맞아야 한다 — 고후 4:10-11, 16.

3. 우리가 매 맞으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즉 그분과 동일시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인간 생명의 매 맞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생수로 흘러나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매 맞음을 통해 생명수의 흐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 고후 4:10-12.

VI.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마 16:18, 롬 5:17, 21.

- A.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의 쟁점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 창 3:3-4, 롬 5:12, 17, 21, 고전 15:22.
- B. 하나님께 속한 것의 특징은 생명이고, 사탄에게 속한 것의 특징은 죽음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생명이고, 사탄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죽음이다 — 요 1:4, 10:10, 11:25, 히 2:14.
- C. 교회에 대한 공격은 죽음으로부터, 곧 음부의 문들로부터 온다 — 마 16:18.
- D. 교회에 대해 사탄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사탄의 죽음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다 — 딤후 1:10.
- E.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죽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 — 요일 5:11-13, 16.
- F.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누려야 하며, 영원한 생명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됨으로써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 요 7:37-39, 빌 1:24-25.
- G.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 요일 1:1-2, 2:25, 5:11-13, 16, 고후 4:12.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봉사는 생명의 흘러 나감임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반드시 모든 봉사가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책임이 단지 사무적인 일들을 다루고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장로들은 그들이 문제들을 관리하고 사무적인 일들을 합당하게 다루는 한, 그들의 봉사가 충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집사들은 자신의 봉사가 사무적인 일들을 마친 것으로 완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교회 봉사는 생명의 봉사이므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만 사무적인 일들을 다루거나 문제들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봉사는 실패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만이 생명을 공급하는 이들이고, 장로들이나 집사들의 봉사는 단지 사무적인 일들을 하고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관념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혀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든, 메시지를 전하든, 사무적인 일들을 관리하든, 심방을 하든, 곧 그 봉사가 영적인 것이든 행정적인 것이든, 모든 봉사는 우리가 받은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을 위한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을 위한 것이다. 심방도 생명의 공급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사무적인 일에서 봉사하는 것도 생명의 공급을 위한 것이다. 심지어 바닥을 쓸고 창문을 청소하는 것 같은 평범한 일들도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봉사에 많은 항목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 많은 항목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봉사에 관한 원칙들을 들었지만, 내가 이에 관해 다시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봉사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봉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장로들과 집사들은 반드시 이 중점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우리의 초점은 어떤 것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을 공급하는 데 있다.

교회는 사회와 다르다. 교회는 생명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지만, 사회는 사업체와 같은 것이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잘했느냐에 있지 않고 생명이 공급되었느냐에 있다. 교회가 생명을 공급하지 않고 일만 주의한다면,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사회가 될 것이다. 성도들은 이 중점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나는 우리가 봉사를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아무렇게나 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공급을 받는 그러한 방식으로 봉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중점에 깊은 인상을 받고, 우리의 봉사가 그분의 생명의 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 우리는 실수에서 구출받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구출의 초점은 성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을 흘려 보내는 데 있다.

생명은 그 영 안에 있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생명은 그 영 안에 있다. 이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거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 영은 '생명의 영'으로 언급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 안에 있으므로, 그 영은 생명의 영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영 안에 있고 우리의 영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사상이나 조망이나 의견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영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거한다. 신성한 생명은 두 영, 곧 우리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그 영 안에 있다. 처음에 신성한 생명은 그 영 안에만 있었지만, 이제 신성한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도 거한다. 성경 해설가들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영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워한다. 그것은 두 영이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8장에서 그 영과 사람의 영은 한 영이 되었다.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은 둘 다 영이므로 본성에 있어서 비슷하다. 그 영은 우리 사람의 영과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위치하고, 거하고, 자란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을 해방해야 한다. 그것은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이 해방될 수 없다면, 신성한 생명은 해방될 길이 없다.

생명과 도덕적인 성격을 구별함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자. 기독교는 선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이 선(善)은 도덕적인 성격과 선행과 좋은 행동을 포함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급된 신성한 생명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

다.”(고후 4:12)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때, 다른 사람들 안에서 생명이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생명은 도덕적인 성격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다. 여기에는 큰 구별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참으로 좋은 성격과 좋은 행동과 선행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선행을 해야 하고 좋은 도덕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선행과 좋은 도덕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봉사가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단지 좋은 성격과 온전함과 인간 미덕들만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생명과 선한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이들은 극소수이다. 만약 어떤 형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리를 공급한다면, 그들은 구리를 받을 것이다. 만약 그가 금을 그들에게 공급한다면, 그들은 금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에 대한 입맛을 가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적이 없는 무언가에 대한 입맛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에 대한 입맛이 없는 것은 기독교 안에 생명의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안에서 표현되는 것은 좋은 도덕적 성격과 선한 행동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성격과 선한 행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통해 표현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봉사는 우리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생명의 흘러 나감인지를 아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봉사, 63-67쪽)*

생명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의 초점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성도들과 교회의 봉사의 중심과 목표는 어떤 사업이나 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직업—농업, 상업, 공업, 교육—에 종사하든 모두가 성공적인 사업을 갖는 것에 역점을 둔다. 만일 그들의 사업이 성공적이라면 그들은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의 봉사는 이와 같지 않다. 만일 모든 행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 즉 크고 작은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교회와 성도들의 봉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며 무가치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할 때 일이나 사업을 산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강조하기를 갈망하신다.

이것을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해 보겠다. 예를 들어, 교회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강조점은 얼마나 많은 집회소를 건축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구축하는가,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수행하는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내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가에 있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봉사의 중심과 목표가 아니다. 교회의 봉사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데에 이러한 항목들을 사용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교회의 봉사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높은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는가 등 이 모든 것의 측정의 표준은 앞에서 언급한 항목들, 즉 사람의 숫자와 물질적인 것들과 사업의 규모와 일의 양이 아니다. 오히려 측정의 유일한 표준은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공급했는가와 교회의 도움과 봉사를 통해서 신성한 생명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갔는가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과 봉사를 측정하실 때 그분은 한 가지 요점에 따라서, 즉 교회가 영적 생명의 공급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주었는가와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의 분량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따라서 측정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이 표준을 사용하여 교회의 봉사를 측정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모든 가정을 집회소로 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분발시켜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을 갖고, 신성한 요소로 충만되고, 하나님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이 공허하고 쓸모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일을 절대로 그분 자신 이외의 어떤 것으로써 측정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봉사와 일을 측정하시는 수단은 오직 사람들이 그분의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는가와 그분의 요소로 얼마나 많이 충만되었는가이다. 만일 우리가 큰 집회 장소를 건축하고 교회의 일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다수의 사람들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봉사와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일은 없다! 우리의 봉사와 일의 무게는 사람들의 숫자나 일의 활동들에 달려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얻고 충만되고 체험한 하나님의 생명의 분량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좀 더 많은 사물들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의 봉사와 일의 무게를 갖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와 일을 측정할 때 결코 이것들을 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와 일이 신성한 생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했는가를 보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들을 접촉하고 도움을 준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으로 들어간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 갖고 있고 또 아직 미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교통한 후에 그들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더 깊이 추구하고 그분의 생명을 더 얻는다.

우리의 봉사와 일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써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의 집회소에 올 때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영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이것들 말고 다른 어떤 선한 것들을 접촉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우리의 집회소에 사람들의 숫자가 아직 적을지라도 일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집회에 들어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접촉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종류의 집회로 걸어 들어올 때, 그는 자신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자신의 어려움들을 헤쳐 나갈 길을 찾고, 그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억눌렸던 것에서 들어 올려졌다는 묘사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이다.

교회의 단체적인 봉사가 이러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봉사도 이러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단 한순간일지라도 내적으로 생명의 공급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온 어떤 것으로 그들을 내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을 소생시키는 것과 같다. 그들은 내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지만, 우리를 한순간 접촉한 뒤에 빛 비춤을 받았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내적인 지식이 부족했으나 우리를 한순간 접촉한 뒤에 그들의 지식이 증가되고 향상되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공급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들이 우리로부터 받는 도움은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교리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이고 생명에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생명 안에서 우리로부터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신성한 생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에서 다른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교적인 접촉이나 금전이나 하나님 외의 어떤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죽음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매혹하고 그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오직 이런 종류의 봉사만이 영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그분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들이라고 말씀하신다.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그것의 재료로서 거기에 있지 않고 열매를 맺기 위해 거기에 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 즉 포도나무의 생명의 공급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과 관련된 우리의 기능이다. 오늘날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재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의 재능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오직 사람들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충만되고 그분의 생명의 공급을 해방하는 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것은 참으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포도나무의 진액으로 충만되어 포도나무의 생명의 공급을 해방하는 것과 같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어떤 것을 행하는 법은 알지 못하지만, 다만 포도나무 안에 거하여 그 생명을 공급받고 흘러 보낸다.

이것이 교회의 봉사이다. 교회의 봉사는 위대한 일이나 큰 성취를 갖는 위대한 사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고 흘러 보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께 우리의 입지를 드림으로써, 그분으로 충만되어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애호와 경향이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애호와 경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과하게 하고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한다.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그분의 생명, 곧 포도나무의 생명이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접촉할 때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의 생명을 접촉한다. 이것이 교회의 봉사이다.

영국에서 고아원을 설립한 조지 뮐러(George Müller)는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에 관해서 쓴 전기들 중 어떤 것들은 그의 사업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의 영적 생활 곧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 앞에서 산 문제들을 소홀히 다루었다. 나는 그의 일기를 읽으면서 그가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지위를 가지시게 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된 한 사람을 접촉하고 있다고 느꼈다. 매번 내가 그의 일기를 읽을 때 나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갖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나는 뮐러가 빛 속에서 살며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그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접촉할 것이다. 이것이 조지 뮐러의 생애이다. 그것은 성공적인 사업을 강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흘러 보낸 삶이었다.

우리는 교회의 봉사가 항상 하나님을 흘러 보내어 사람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하는가, 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흘러 보내는가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공급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이 그 모든 현안들이 놓여 있는 지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심판하실 때 결코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생명을 사용하시어 우리의 일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생명의 요소를 더욱 가질수록 그것은 더욱 무게가 있고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은 공허하고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공활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우리와 그분과의 교통으로부터 나오고, 그분과 그분의 생명의 흘러넘침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영과 영 안에서의 봉사, 168-174쪽)*